

영양크림 한 통을 통째로 바른 듯 더페이스샵 '마스크림 텐션 시트'

Advertorial Corner

시트형 마스크 리뉴얼 출시
주름개선·안티에이징 케어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해 기존 시트형 마스크 '마스크림'을 리뉴얼한 '마스크림 텐션 시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이 새롭게 선보인 '마스크림 텐션 시트'는 기존 마스크림과 비교해 하관 부분의 페이스 라인을 쫄쫄하게 당겨서 올려주는 극세사 텐션 시트가 적용되었고, 전 라인에 주름개선 기능을 추가해 한층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텐션 시트는 기존 시트보다 턱 아래인 하관 부분을 넓게 제작해 늘어진 턱밑 부분까지 최대한 감싸 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톰한 시트에 맞춰 유효 성분을 담고 있는 크림 용량도 기존 30mL에서 40mL로 증량했기 때문에 더욱 넉넉한 용량으로 듬뿍 머금어진 크림을 경험할 수 있다.



더페이스샵에서 마스크림을 리뉴얼한 마스크림 텐션 시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4종으로 구성된 미백, 수분, 탄력, 보습 전 라인의 효능 성분에 주름개선 기능이 추가되어 안티에이징은 물론 다양한 피부 고민까지 케어할 수 있다.

더페이스샵 담당자는 "마스크림은 이름 그대로 크림 한 통을 모두 바른 듯한 풍부한 영양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며, "텐션 시트를 적용해 피부톤과 결뿐만 아니라 탄력 관리까지 가능해지면서 복합적인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유통가 소식

올리브영, 세일 연기... "고객·직원 안전 우선"

3월 예정 봄 정기 세일 추후 결정

CJ올리브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봄 정기 세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애초 봄 정기 세일을 3월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사 방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CJ올리브영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속해서 면밀히 살펴 세일 시기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올리브영이 추구하는 '건강한 아름다움' 가치에 따라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

"녹차로 장 건강 챙기세요" 퍼실, 액체세제 점유율 1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바이탈뷰티' 기능식품 '녹차에서 온 유산균' 출시

아모레퍼시픽 이너뷰티 솔루션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유기능 녹차 유래 특허균주가 편



'녹차에서 온 유산균' /바이탈뷰티

안한 장 건강 리듬을 찾아주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녹차에서 온 유산균'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차유래유산균 GTB1™을 포함, 엄선한 6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담아낸 '녹차에서 온 유산균'은 항균력이 강한 차잎에서도 서식하는 녹차유래유산균을 함유해, 자극적인 식생활에 길든 한국인의 장에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액체 세제 브랜드 퍼실(Persil)이 지난해 2019년 액체 세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칸타월드패널이 2019년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인터넷, TV 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조사한 결과, 퍼실은 2위 브랜드와 약 10%의 큰 점유율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퍼실은 2014년 이래 액체 세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6년째 차지하며 국내 세탁세제 시장의 독보적인리더브랜드임을 과시했다.

2019년도 대한민국의 액체 세제 시장의 규모는 82.6%로 10가구 중 8가구가 액체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퍼실 액체 세제

'렘시마SC' 국내 판매된다

셀트리온 식약처서 판매허가
IBD 적응증 추가해 시장출시
2022년 美 FDA 허가 목표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의약품 '렘시마SC'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TNF- α 억제제(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인 렘시마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써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하고, 이달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적



셀트리온 자체개발 의약품 '렘시마SC'

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셀트리온은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추가를 위해 변경허가절차를 거쳐 연내 적응증 추가를 받을 계획이다. 렘시마SC는 IBD 적응증 추가에 대한 허가 완료 후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셀트리온은 최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에 렘시마SC 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허가 후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직판망을 통해 캐나다 전

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인 시장 미국에서는 렘시마SC를 '신약'으로 인정해 1·2상 임상을 면제받고 현재 3상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셀트리온은 2022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렘시마SC 식약처 허가에 따라 셀트리온은 국내에서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유수의 해외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공개를 통해 약효 및 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렘시마SC를 국내 환자들에게 조기에 선보일 수 있도록 IBD 적응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구구' 日 진출... 산도즈와 맞손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日 대표 제약기업)

6월부터 산도즈 통해 현지 출시
"日 퍼스트제네릭으로 시장개척"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구'가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확보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BPH)'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 시장 판매는 일본 대표 제약기업 중 하나인 산도즈가 맡는다.

한미약품은 최근 일본 허가 당국으로부터 구구 2.5mg과 5mg 두 가지 용량을 BPH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허가를 취득하고, 오는 6월부터 산도즈를 통해 현지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제품명은 '산도즈 타다라필 (2.5·5mg)'이다.

한미약품은 구구 완제품을 생산해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구구'

산도즈에 공급하며, 산도즈는 이를 패키징한 뒤 일본 전역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한다. 이번 수출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경구용 완제의약품이 일본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다. 지난 2018년 일본 타다라필 BPH 전체 시장은 연간 6300만정도로, 향후 한미는 일본 BPH 시장의 최대 점유율 확보를 목

표로 산도즈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국 비뇨기 시장에서 확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구구가 일본에서 '퍼스트제네릭'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파트너사와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일본 BPH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구는 전립선과 방광의 평활근에 있는 PDE5 효소를 억제해 발기를 돕고 BPH를 개선하는 정제 형태의 전문 의약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5mg과 5mg은 전립선비대증으로, 10mg과 20mg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적응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국민대 임홍재 총장(왼쪽)과 (주)국민대학교기술자주회사 국민바이오(주) 성문희 공동대표가 지난 21일 외국인 유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약콩두유 4만개 기증을 약속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국민바이오, 유학생 위해 콩두유 4만개 기증

국민대학교는 지난 21일 국민대학교 기술자주회사 국민바이오가 외국인 유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국민약콩두유 4만개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국민약콩두유는 모두 국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국민바이오(주)는 바이오헬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기초 연구성과를 활용해 올해

100% 우리 콩으로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국민약콩두유와 제주나물콩두유를 출시했다.

이번에 기증된 국민약콩두유는식이 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되는 약콩 '익산 소청자'를 골라 만든 전두유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어린이 성장, 신장질환, 산후풍 등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동아제약-동부교육지원청

월드비전 '아침머꼬' 지원

동아제약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의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동부교육지원청이 가정 형편상 아침 식사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초·중학생들이 아침 식사 후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가그린, 가그린 치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등의 구강 청결 용품을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총 10개 학교 100명의 학생에게 1년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